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의결안건 제177호 관련)

2021. 9. 1.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9월 1일(수) 14:00~18:42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53호, 제154호, 제169호~제177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177호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함.

○ (위원) 과태료 1억 1,440만 원에 대해 부과 면제 의결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은 투자자 재산이라고 해서 면제를 해 주면 투자자가 그것을 찾아간다는 얘기인 것인지?

- (보고자) 투자자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임.

○ (위원) 일반투자자는 ○○증권과 △△△△증권이 100% 보상을 하고, 전문투자자, 기관 이런 곳만 남아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피해자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전문투자자와 불완전판매를 행한 판매증권사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라는 점을 일단 분명하게 해야 됨.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위반행위를 행한 기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납부하게 될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만약 납부를 면제해 주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없다는 점, 과태료 1억 1,440만 원의 10배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는 11억 5,000만 원이라는 고유재산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별표3> 과태료 부과 면제 (1), (8)을 적용해서 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자에 대해서 선(先)배상이 완료된 판매사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단지, 일반투자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판매사들이 전부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 지위에 크게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임. 그리고 저희로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의 실사내용과 현금성 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11억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실사보고서나 저희 검사에서 자금추적결과 펀드자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는 투자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자금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과태료 부과 면제를 건의하게 되었던 것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도 수용하고자 하고 있음.
- (위원장) 저희 증선위원님들께서도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 면제 건의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 그렇지만 다른 측면들도 따져봐서 다들 의견을 모으신 것 같음. 의결안건 제177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 (1), (8)을 근거로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한 과태료안 1억 1,440만 원을 면제할 것을 건의하였음. 과태료는 행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제재로 행정청은 제재사유 발생시 제재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현재 의결시점을 기준으로 옵티머스자산운용(주)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제5호 (1)에 따른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며, 동사가 향후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3 제5호 (8)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 면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과거 조치선례 및 향후 다른 제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에도 금감원이 제시한 사정은 과태료 면제 사유로 삼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옵티머스자산운용(주)에 대해 과태료 1억 1,44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한편, ○○○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